

지역밀착형 생활SOC, 주민과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사회공학박사)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회의(2018.8.8)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확대 안건에서부터 논의되었음. 전통적인 의미의 SOC가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토목건설이라고 한다면, 지역밀착형 SOC는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택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인프라 투자라고 할 수 있음. 생활SOC는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목표함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유의해야 함. 첫째, 기존 생활SOC 운영 시 행정편의 및 수익성을 우선하여 주민 활용도가 저하되고 주민 불만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음. 둘째, 향후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방치된 유휴공간과 분절된 생활SOC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 셋째, 이번 생활SOC 정책조치 복지의료부문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생활SOC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이 부문별·지역별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향후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제안함. ①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생활SOC 운영, ② 효율성을 위한 복합화 및 유휴공간 활용과 형평성을 위한 소외지역 지원 강화, ③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

□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요

○ 공간·개발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람·이용에 중심을 둔 투자, 생활 SOC

- 생활SOC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회의(2018.8.8)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확대라는 안건으로 시작
- 문재인대통령은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 생활과 밀착한 생활 SOC에 대한 투자 강화를 언급하며,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 (2018.9.4.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
- 생활SOC는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2018.8.30)에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위한

7가지 의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2018.8.31.) 시 생활SOC 투자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등 여러 정책과 연계

○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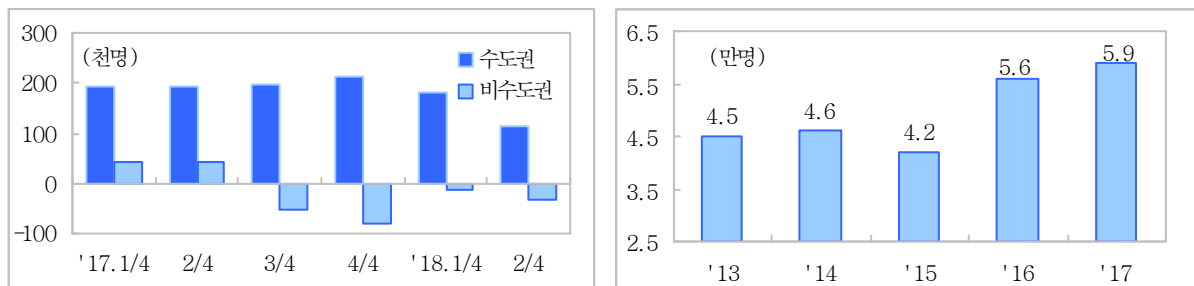
- 전통적인 의미의 SOC가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토목건설이라고 한다면, 지역밀착형 SOC는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택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인프라 투자라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국민의 생활 만족을 위한 사회복지부문 투자가 낮았던 측면을 전환시켜,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고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임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세부내용

○ 생활SOC 추진배경 및 목표

-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에 비해, 2017년 OECD 국가 삶의 질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9위로 나타나 아직 부족한 상황
- 수도권 외 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지역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아래 그림 참고)
- 이에 생활SOC를 추진하여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목표함

<그림> 지역별 취업자 증감 및 비수도권 청년 순유출 1)



○ 생활SOC 10대 투자과제

- 이번 생활SOC 투자는 총 12조원의 대규모 투자로 총 22개 부처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49개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하고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기준으로, 지역과 밀착된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하고 단기 간 집중 투자하여 효과 극대화를 추구함 (p.3 표 참고)

1)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18.8.27) 자료 인용

<표> 지역밀착형 생활SOC 주요 투자 내용

구분	10대 과제	2019년 주요 투자 내용
여가·건강 활동 지원	① 문화·생활 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 지역 내 근거리 문화·체육시설 확대 - 국민체육센터 확충,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② 지역 관광 인프라	○ 지역 내 문화·역사 콘텐츠 인프라 구축 - 첨단콘텐츠 등 박물관·과학관 전시시설 보강, 캠핑장· 생태공원 확대
지역활력	③ 도시 재생	○ 「도시재생 로드맵」 추진속도 제고 - 도시재생 뉴딜지역 지원·자금 융자 확대
	④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 어촌·어항 연계·통합개발,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 등
	⑤ 스마트 영농	○ 스마트 ICT 기술 활용 농·어가 생산성 향상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⑥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개선·경쟁력 강화 - 청년친화형 산단 확대,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 스마 트 공장 확대
생활안전 및 환경	⑦ 복지시설 기능보강	○ 취약계층 거주·훈련 시설 보수 -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복지시설 등 보강
	⑧ 생활안전 인프라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전통시 장 화재예방 등
	⑨ 미세먼지 대응	○ 도시숲 조성,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 도시바람길 숲·미세먼지차단 숲 조성, 전기차 충전기· 수소차 충전소
	⑩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에너지 설치·보급 지원 - 농가·협동조합 등 태양광 설치지원, 공공기관 유희부 지 활용 태양광 보급

- 하지만 이번 생활SOC 정책 목표는 현실적인 인구감소와 재원을 고려한 것으로, 아
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정책의 1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에 관련된
국제 비교를 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생활 SOC의 수준이 많이 열악한 상황임
- 예를 들어 수영장 1개소 공급기준을 살펴보면, 일본은 1만 명, 캐나다는 2만 명, 호
주는 3만 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4만 명 당 1개소 공급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이번 생활SOC 정책 추진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짐 (아래 그림 참고)

<그림> 주요 체육시설 선진국 공급수준 비교 2)

(단위: 명 /개소)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유의점

○ 행정편의 및 수익성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활용도 저하 및 주민 불만 증가

- 이번 생활SOC 투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정작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SOC 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 불만이 높은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말 운영을 안 하는 경우, 신규 등록을 위해 새벽부터 줄서기가 필요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 자치단체 직영 전환 후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경우, 특정 단체 또는 지역 동호회의 독점으로 시설이 사유화된 경우 등 다양한 불만 사례가 존재함 3)
- 이는 행정편의 및 수익성이 우선되어 생활SOC 시설에 대해 활용도가 저하되고 주민 불만이 증가된 것으로, 생활SOC 예산의 추가 집행 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함

○ 방치된 유휴공간 및 분절된 생활SOC의 존재

- 최근 빈집 증가 등 유휴공간·시설 증가로 지역 미관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유휴공간·시설을 생활SOC 활용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로 본다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관 개선과 커뮤니티 공간확보 및 단절된 지역사회의 연결 등 지역활성화의 순기능이 가능함 4)
-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부 시설들을 거점화 하고 기능을 복합화하여 생활SOC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여전히 지원이 미비한 복지의료부문과 접근성 낮은 소외지역의 존재

-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역거점병원·커뮤니티케어·아동센터 등이 포함된 복지의료 부문 예산은 0.3조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구성

2)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 내부자료 가공

3) 신문 및 TV 기사를 통한 자료 수집(2015.2~2018.8)으로 사례 조사

4) 유휴공간 활용 및 도시재생 기제로서 체육시설(고진수 교수 국회의원회관 발제, 2017.11.29) 참고

- 특히 복지의료 부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생활SOC가 추구하는 철학인 ‘국민이면 기본으로 누려야하는 일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국민이 추진정책의 대상임
-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라는 보고서(국토연구원, 2018.10.12.) 사례에서 전국 영유아인구의 1.8%는 보육시설에 2.5km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며, 전북 진안군의 경우 전체 주민의 17.5%가 10분 내로 도달 가능한 기초생활SOC 시설이 1개미만으로 파악됨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에 대한 제안 사항

○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생활SOC 운영

-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현재 존재하는 생활SOC부터 주민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 3자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독점을 견제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해야 함
- 주민 사용을 중심으로 운영을 추진하여 생활SOC 관련 고용 및 인력 양성까지 가능할 수 있음 5)

○ 효율성을 위한 복합화 및 유희공간 활용, 형평성을 위한 소외지역 지원 강화

- 생활SOC의 지역적 접근 범위와 기능을 고려하여, 수요가 집중된 거점지역에는 생활SOC를 복합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유희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까지도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초등학교 체육관에 다목적 생활SOC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과 근로자 등 보다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생활SOC를 추진해야 함
- 이와 함께 생활SOC 거점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여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이 높은 100원 택시 등 이동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 6)

-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서 탈피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커뮤니티를 강조함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과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10대 과제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5)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생활SOC 투자 정책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8.20) 참고

6) 더불어성장을 추구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6.8) 참고

종합적인 기획과 설계로 고품질의 생활SOC가 구축될 때, 생활SOC 정책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